DBpia

난임 여성이 경험하는 상실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 여성을 중심으로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ubfertile Womens Experience of a Sense of Loss : Focusing on Christian Women

저자 (Authors)
전순초, 이상희
Jeon, Sun Cho, Lee, Sang Hee

출처 (Source)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1), 2018.2, 149-178(30 page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9(1), 2018.2, 149-178(3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370441

APA Style
전순초, 이상희 (2018). 난임 여성이 경험하는 상실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1), 149-178

이용정보 (Accessed)
가천대학교
211.253.219.***
2019/06/19 09:0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Vol. 29, No. 1, 149 – 177

난임 여성이 경험하는 상실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 여성을 중심으로

전순초 / 광운대학교
이상희* / 광운대학교

본 연구는 기독교 난임 여성들이 난임 상황에서 경험하는 상실에 초점을 두어 질적 연구 방법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난임 여성의 상실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난임 전문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시험관 시술을 한 적이 있는 32-38세의 여성 7명이며, 연구 방법은 현상학적 방법 중 참여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진술 내용들을 범주화하는 Colaizzi(1978)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46개의 의미 진술과 14개의 주제, 7개의 주제모음이 도출되었으며, 주제모음 7개는 여성 정체성의 상실, 관계의 상실, 모성 경험의 상실, 희망의 상실, 즐거움의 상실, 친밀한 성생활의 상실, 하나님과의 긍정적·부정적 관계의 상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난임 여성이 경험하는 상실에 대해 심리사회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난임의 경험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또한 난임 여성들이 경험하는 상실이 억압된 이야기와 왜곡된 생각들에 기인한다고 보고 난임 여성의 상실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상담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난임 여성, 기독교, 상실, 현상학적 연구, 상담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상희,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산업심리학과 / sanglee@ kw.ac.kr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I. 서론

난임/불임(Infertility)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일 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거나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Woods, Olshansky, Draye, 1991).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청년기의 나이가 되면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최근 들어 결혼은 예전보다 선택이 가능한 결정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한 성인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해 비중 있는 고민을 한다. 특히 결혼을 선택한 여성들 중 많은 사람은 아직도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원하거나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준으로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를 설정하여 가족생활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이정숙, 1993), 또한 성경에서도 창세기 1:27-28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셔서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렇듯 기혼여성의 삶에서 출산은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자녀를 원하지만 자녀가 없는 부부의 삶은 무언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진다. 따라서 임신을 원하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해당 여성은 당황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하게 된다(Worthington, 1987).

황나미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15-39세 기혼여성 가운데 난임 여성의 비율은 약 13.5%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기혼여성 8명 중 1명이 임신이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높은 난임 여성의 비율과 함께 초저출산국이라는 국가적 문제의 등장으로 난임 여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정부는 공식적으로 '불임'(不姙)이라는 표현을 금지하고 '난임'(難姙)으로 표기하도록 하여 임신이 어렵지만 임신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미로 난임을 사용하고 있다(황나미, 2013). 또한 난임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의 수가 2013년 약 19만 명에서 2015년 약 22만 명으로 13%가 넘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술비 및 시술 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시작했다(보건복지부, 2017). 이처럼 정부의 지원확대와 최첨단 의료기술은 난임 대상자들이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최첨단 의료기술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난임 여성에게 신체적 부담이 따를 뿐 아니라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난임 여성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기도 한다(황나미, 2013).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와 문화가 현대화되면서 인권과 여성권에서도 많은 진보와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주변부에 위치했던 여성의 지위는 과거 사회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인격체로서 주도적인 삶을 사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고,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경제활동이나 자아실현의 장에서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보이는 여성의 모습은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잔재해 있으며(이희정, 2015), 특히 임신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흔적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여성의 문제로 인한 난임이 아니라 난임의 원인이 남성에게 있는 경우에도 여성이 아이를 잉태하여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난임 여성이 받게 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이윤정, 2008).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난임 여성들은 난임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난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도 방문하고, 운동이나 한방치료 및 민간요법 등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지만 임신에 실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실감을 경험한다. 이때 흔히 보고되는 우울은 상실 경험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정서로 볼 수 있다(박강희, 2014). 김라현 등(2011)의 보고에 의하면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94.5%가 임신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우울 증상을 경험하였고, 42%는 매우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김라현, 이원우, 김영재, 호정규, 한동운, 최영민, 황정혜, 2011). 난임 여성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은 암환자 등 중증 환자에 상응할 만큼 심각하다는 보고가 있으며(Domar, Zuttermeister, Friedman, 1993), Verhaak 등(200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체외수정 시술 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그 후 6개월까지도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불안과 우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erhaak, Smeenk, Van Minnin, Kremer, Kraimat, 2005). 또한 Lund 등(2009)에 의하면 난임 여성의 우울은 가족의 공감이 낮거나 가족, 친구 및 이웃과의 갈등이 많고 압박 수준이 높을 경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Lund, Sejbaek, Christensen, Schmid, 2009). 즉, 난임 여성이 접하는 사회적 대상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난임 여성은 친구나 친척들이 좋은 뜻으로 하는 말에도 상대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양가 부모들도 손자 손녀를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여 압력을 줄 수 있고, 교회나 종교 모임 등에서도 가족 중심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생각지 않던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경험될 수 있다(Worthington, 1987).

이처럼 난임이 생명에 위협적인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임 여성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기도 한다. 더불어 광범위한 영역인 여성성, 부부 친밀감, 여성 정체감, 며느리나 아내의 역할, 친구관계 등에서 상실감들을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 Gerrity(2001)는 난임 여성들이 임신을 하지 못하면 삶에 대한 만족감의 상실을 경험하며, 부부 간의 관계에서 능력의 상실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Cousineau와 Domar(2007)도 난임 여성의 상실은 신체적 건강, 정서적 안녕, 인생의 목표, 자신감, 사생활, 자신의 몸에 대한 조절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성경에서도 구약시대의 난임 여성들이 유사한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사라(창 16:1–4)와 라헬(창 30:3–6)은 아이가 없어서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하였는데, 이는 아내의 역할에 대한 상실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라헬(창 30:1)은 언니를 시기하였고, 한나(삼상 1:6)는 남편의 다른 아내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였는데, 이런 모습들은 관계의 상실을 경험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난임 여성들도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고통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연구조사에서 난임 여성들의 종교 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영, 2015; 김숙영, 황승숙, 1996; 김주희, 신혜숙, 2009; 박영주, 1995). 이들은 다른 난임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여성들이 겪는 상실감을 유사하게 경험하고 있지만 대처방법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시행한 한혜실(2003)의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경우 난임을 경험하게 되면 진단받기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게 됨을 보고한다. 생명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적인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난임이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죄 용서받음에 초점을 두어 신앙생활에 몰입하는 경우도 있다. 황승숙(1999)의 질적 연구에서도 기독교 난임 여성들은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 전략에서 탯줄을 열어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아이가 없는 것은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통을 견딜 수 있고, 언젠가는 아이를 주신다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매일 기도를 한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처럼 기독교를 믿는 난임 여성들은 난임에 대한 상실감이나 대처에서 다른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난임 여성들이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고통과 상실감을 겪고 있음을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받았거나 심리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은 2% 이하에 속하는 매우 낮은 비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강은영, 2015; 김라현 등, 2011). 사실 난임은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영역까지 포함되는 문제이며 또한 폭넓은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까지 다루어지며 난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상담 분야에서 난임은 아직까지 특수영역에 속하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교회 공동체나 기독교 난임 여성 중 몇몇은 성경구절(창 20:18; 레 20:20)의 일부분을 자신에게 채택하거나 받아들여 자식이 없는 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왜곡해서 생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연구에서 난임 여성들이 심리사회적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로 난임 여성들이 겪는 상실감의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경험하는 난임에 의한 상실감을 좀 더 자세히 탐색하고, 또한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상실감의 의미도 이해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난임 여성의 상실감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경험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본 연구의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기독교 난임 여성들의 상실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힘으로써 이들의 경험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갖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난임 여성의 상실감 회복을 돕기 위한 기독교 상담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한 여성들이 경험하는 상실에 대하여 Colaizzi(1978)의 현상학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현상학적인 방법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이 경험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밝혀내는 기술적(descriptive)이고 귀납적(inductive)인 연구 방법이다. 또한 주어진 현상을 구성적이고 발생적인 근원을 탐구하는 철학에 뿌리를 두고 하나의 현상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들을 확인하여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한다(Cresswell, 2011).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 M 난임 전문병원을 방문한 여성들로 난임 진단을 받은 후 시험관 시술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참여자들은 M 난임 전문병원 심신의학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여성들 중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고 자신의 의사를 밝힌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먼저 한 사람에게 예비면담(pilot interview)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반구조화 질문을 작성하였으며 7명의 참여자 각각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M 난임 전문병원에서 8년째 심리 상담사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M 난임 전문병원은 시험관 시술을 받는 사람에게 심리 상담을 3회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은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연령	학력	직업	결혼기간	시술 횟수	치료 기간	불임원인	비고
참여자1	32세	대졸	주부	3년	3회	3년	여성측	
참여자2	33세	대졸	주부	3년	5회	3년	원인불명	유산
참여자3	36세	대학원졸	회사원	5년	6회	3년	여성측	
참여자4	38세	대졸	주부	8년	5회	6년	원인불명	
참여자5	37세	대졸	주부	5년	8회	4년	원인불명	
참여자6	36세	대졸	주부	4년	5회	5년	원인불명	
참여자7	35세	대졸	주부	3년	4회	3년	원인불명	

연구 참여자들은 난임 진단을 받고 시험관 시술을 경험한 여성들로서 임신의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 6명과, 임신이 되었으나 유산한 경험이 있는 1명으로 출산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들이다. 나이는 만 32–38세이며, 직업은 회사원이 1명이고, 난임 휴직 2명,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일을 그만두고 시험관 시술에 전념하고 있다. 결혼기간은 3년에서 8년이며, M 난임 전문병원에서 난임 치료를 받는 기간은 3년에서 6년이다. 시험관 시술 횟수는 3–8회를 받았으며, 난임의 원인으로는 여성 측 2명과 원인불명 5명이다.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3.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실시했으며, 해당기관에 연구의뢰서를 제출하여 동의를 받았고, 개별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허락한 사람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다음 진행하였다. 면담 횟수는 연구 참여자에 따라 1-2회기 실시했으며, 1회 면담시간은 평균 6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 장소는 M 난임 전문병원 내 심신의학센터 개인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하며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면담은 개방적인 질문(open-ended questions)과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도 있게 탐구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을 사용하였다.

면담을 위한 주요 질문 내용은 '난임 진단을 받고 경험한 상실감은 어떠합니까?',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겪으며 경험함 상실감은 어떠합니까?', '기독교인으로써 난임에 대한 상실감은 어떠합니까?'였다. 면담 시 참여자 자신이 충분히 생각한 후, 경험한 난임 상실감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며 경청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녹음된 내용을 현장 노트와 함께 문서화하였으며 문서화 도중 의문스러운 내용은 다음 면담 시 질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 난임 여성이 경험하는 상실에 대한 심리적 현상을 나타내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공통적인 속성을 발견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사용하였다. 연구진행은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접에서 인터뷰한 녹음 내용을 필사하여 반복하여 읽고, 의미 있는 문장이나 단어에 밑줄을 그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추출하였다. 셋째, 의미 있는 진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술을 비슷한 내용들로 묶어서 더욱 명확하게 의미가 표현될 수 있도록 구성적 의미로 재진술하여 46개의 구성의미(formulated meaning)를 도출하였다. 넷째, 구성의미에서 공통적인 경험의 현상들을 묶어 14개의 주제(themes)로 분류하여 의미중심으로 통합하여 연구현상의 본질적인 구조로 기술하였다. 다섯째, 주제들을 모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된 현상을 7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으로 묶어 추상적인 용어로 기술하였다.

연구자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였으며, 면담자료는 질적 연구 상담학 전공 교수님과 상담학 전공 박사 1명, 그리고 상담 관련 전공 석·박사통합 재학생 1명이 자료 분석에 대해 4차례의 모임을 통해 서로 토의하여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표 2〉 도출된 의미 있는 진술, 주제, 주제모음

의미 있는 진술	주제	주제모음
(1) 여자한테 아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다.	무능력감	여성 정체성의 상실
(2) 아이는 나에게 이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이고 열매다.		
(3) 내가 여자로서 완전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 같다.		
(4) 임신이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5) 여자로 태어나서 아이를 못 갖는 게 창피하다.	여자 역할 못함	
(6) 여자로서 애를 못 낳은 것,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다.		
(7) 여자로 태어난 게 부담스럽고 슬프다.		
(8) 차라리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9) 남편은 시댁에서 장남인데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설 자리가 없다.	대를 잇지 못함	
(10) 시부모님은 종갓집이니 가문의 대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11) 내 역할을 못하니 시댁에 가면 나만 낙오자가 된 것 같다.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12) 친구와 가끔씩 연락을 하지만 모임에는 안 나간다.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함	관계의 상실
(13) 누구와도 어울릴 수가 없어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14)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할 수도 없다.		
(15) 아이가 있어야 부부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부부관계의 위태로움	
(16) 아이가 없으니 남편의 손을 놓아 버릴까 생각을 한다.		
(17) 난임 연차가 오래될수록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18) 아이는 잃어버린 나의 일부분이다.	아이의 중요성	모성 경험의 상실
(19)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다.		
(20) 아이는 가족이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다.		
(21) 결혼 8년차 되었는데 이제는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엄마가 되고 싶음	
(22) 여자라면 아이를 가져서 배불러보고 싶고 낳아보고 싶다.		
(23) 아이가 있으면 엄마로서 새로운 또 다른 삶을 살 것 같다.		
(24) 아이가 없으니 아이가 있는 친구들과 대화가 안 된다.		
(25) 임신에 내 노력으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실패자 같음	희망의 상실
(26) 난임 치료 마지막인 시험관을 하면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7) 시험관 3번 실패가 반복되니 눈물만 나고 자신감이 없어진다.		
(28) 남들은 다 임신을 하는데 나만 못 하니 마이너 같다.		
(29) 임신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부담이 되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	
(30)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고 도태되는 것 같다.		
(31) 나는 외동딸인데 나중에 혼자 남을까봐 걱정이다.		
(32)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하다.	의욕을 상실	즐거움의 상실
(33)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세상이 캄캄하다.		
(34) 내 생활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바닥을 치는 것 같다.		
(35)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나 고민을 하게 된다.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36) 예전에 재미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재미있는지 모르겠다.	재미가 없음	
(37) 남편이 나를 위해 애써주는 데도 기쁘지 않다.		
(38)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사는 게 낙이 없다.		
(39) 남편은 나를 안고 싶어 하는데 거절할 때가 많다.	성행위 불편감	친밀한 성 생활 상실
(40) 부부생활을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해야 하니 부담이 된다.		
(41) 배란기일 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한다.		
(42) 사랑하는 마음 없이 로봇같이 기계적인 부부생활을 한다.		
(43) 시험관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원망하는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과의 긍정적·부정적 관계상실
(44)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이를 안 주셔서 화가 난다.		
(45) 난임은 기도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46) 임신이 안 된 것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경험한 여성들의 상실에 관한 것을 현상학적 접근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이 진술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도출된 의미 있는 진술 46개, 14개의 주제들과 7개의 주제모음을 〈표 2〉와 같이 도출하였다. 7개의 주제군은 여성 정체성의 상실, 관계의 상실, 모성 경험의 상실, 희망의 상실, 즐거움의 상실, 친밀한 성생활의 상실, 하나님과의 긍정적·부정적 관계의 상실이다.

1. 여성 정체성의 상실

한국문화는 유교의 영향으로 가부장적인 제도가 만연해 있다. 가부장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적인 문화권에서의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통해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존재감의 위협을 받게 된다. 특히 유교의 효 사상은 여성을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주는 기능적 존재로 여긴다. 박강희(2014)의 연구에 의하면 난임 여성은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 수치심과 상실감을 경험하는 것이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여성 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주제는 "무능력감", "여자 역할 못함", "대를 잇지 못함"으로 한국의 가족의 문화는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유교문화와 가족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김동춘, 1994).

남들은 다 하는 임신을 자신만 못 하기 때문에 자신은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자 역할 못함은 매개체가 없으니 며느리로서 소속이 안 된 것 같다.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함은 체면의 도리를 못한 것 같으며 특히 배우자가 장남이거나 외아들인 경우에 불안감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 여자로서 아이를 못 낳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아이 없이 나중에 정말 우리 둘만 살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나에게 이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이고, 가장 귀한 생명이고, 열매라고 봐요. (참 1)

> 시댁에서 남편은 장남인데 대를 이어주지 못한다면 설 자리가 없어요. 저도 며느리로서 의무감이 있으니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줘야 하는데…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차라리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6)

> 시아버지가 "너는 여자로 태어나서 아이를 못 갖는 게 얼마나 창피한 것인 줄 아니, 너는 생리를 하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도 여잔데 애기를 못 가지니까 창피한 거예요. 저는 원래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감도 없어지고 그런 아픈 말을 들으니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껴졌어요. 저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으면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요. (참 3)

2. 관계의 상실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한국인에게 관계 단절 경험은 힘든 일이다(권수영, 2007). 수치심은 관계적 감정으로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그 일이 타인에게 노출되면 자신을 비난하게 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감정 상태이다(Lewis, 2013). 난임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하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 또한 예전과 같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 만나기를 회피하고 사회활동에 관심이 없으며 무기력함으로 인해 사회적응력이 떨어진다(이진용, 권재희, 1998).

본 연구에서 도출된 관계의 상실에 대한 주제는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함”, “부부관계의 위태로움”으로 난임 여성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갇혀 살고 있으며, 난임을 알고 있는 지인들과 만남을 불편하게 여겨 이들과의 모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고 했다. 부부 관계의 위태로움은 부부를 이어주는 끈이 없으면 남편과 이혼으로 발전될까봐 두려운 마음을 표현했다.

난임 병원에 다닌다는 것 자체를 친구들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모든 관계들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다 깨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친구들과도 가끔씩 연락만 하고 모임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안 나가게 되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연락이 끊어져서 친구들 사이에서 나만 왕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점점 더 주변사람들과도 관계를 끊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5)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동네에서 얼굴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피해 다른 길로 가게 되요. 나를 만나면 아이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에 대해서 물어볼까봐 겁이 나거든요. 저는 누구와도 어울릴 수가 없이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울음). (참 2)

싱글도 아니고 애 엄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에 들어가서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군데에 저만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어쨌든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참 6)

아이는 행복을 주는 존재이고, 부부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과연 아이가 없다면 부부로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남편은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데 손을 놓아버릴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요. 애가 있든 없든 살아야 하는데… 하지만 난임 연차가 오래될수록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요. 너무 힘드니까 임신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요. (참 4)

3. 모성경험의 상실

우리의 사고와 행동 양식에서 여성은 성인이 되면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의 암묵적 규범이 있다. 규범에서 벗어난 난임 여성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자리에 놓인다(박강희, 2014). 유치원 아이들이 소꿉놀이하는 것을 보면, 여자 아이들은 어머니 역할을 많이 한다. 이처럼 어린 유아들도 어른이 되면 당연히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장한다. 그러므로 결혼을 한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기대했던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난임 여성들은 이에 대한 상실감을 경험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성경험의 상실 주제는 “아이의 중요성”, “엄마가 되고 싶음”으로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아이가 없어서 비어 있는 허전함이 있으며, 엄마로서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며 아이를 돌보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아이는 내 생에서 가장 무거운 과제에요. 어쨌든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를 낳아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을 잘 벌면 뭐해요. 내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낳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행복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참 6)

여자로 태어났고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를 가져서 배불러본다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내 자식을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결혼 8년차 되었는데 엄마라는 소리도 들어보고 엄마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저희 둘만의 가정 울타리는 안전하지 않고, 아이가 있어야만 안정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부모가 되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참 4)

아이가 있으면 엄마로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가 있다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쇼핑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대화하는 것도 달라져서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과도 대화가 잘 되어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7)

제가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아이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나이 때는 다들 아이가 있는데 저만 아이가 없어 강아지만 키우고 있어요. 저번에는 남편 동호회 모임에 강아지를 데리고 갔는데 친구 부인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저는 강아지 먹이를 주면서 수치심이 들었어요. 동호회 모임에 아이 있는 여자가 온다고 하면 다시는 동호회 모임에 안 나간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참 2)

4. 희망의 상실

난임 여성들이 경험하는 희망의 상실은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과 같은 위기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를 뜻한다. 이들에게 임신에 대한 희망과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희망의 상실은 미래의 희망을 상실하는 것과 같다(박강희, 2014). 이들은 출산을 못함으로 인해 여성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잃게 되고, 노후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삶의 소망을 잃게 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희망의 상실에 대한 주제는 “실패자 같음”,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으로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실패자 같은 느낌이며, 난임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래가 불확실하니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불안해한다.

> 결혼 3년째 시험관 3번 실패,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나요. 일하다가 울고, 걸어가다 울고, 문득 문득 울고, 누가 아이에 대해 물어보면 울고, 계속 임신이 안 될까봐 울고, 내가 미쳤나 봐요.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요. (참 1)

> 피검사 점수가 나오는 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인공을 하고 마지막에 시험관을 하면 임신이 되는 줄 알고 기대감과 환상을 가졌는데 실패라는 판명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들은 하는 것을 나만 못 한다고 생각하니 못난이 마이너 같아요. (참 5)

> 남편이나 시댁에서 아이를 강요하지는 않는데 부담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꼭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임신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요. 나는 외동딸이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신랑이 먼저 간다면 나중에 나 혼자만 남을까봐 걱정이 되요. 외롭고 불안하고 무서워요. (참 7)

5. 즐거움의 상실

난임 여성은 아이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은 일반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Jacob, McQuillan, & Grei, 2007), 난임에 의한 상실감으로 인해 우울하고 쓸쓸하며 외롭고 공허하며,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삶의 즐거움이 없으며, 안절부절못하며 신경질을 잘 낸다. 또한 의욕이 감소하고 이전에 즐거웠던 일이나 활동에 흥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진용, 권재희, 1998).

본 연구에서 도출된 즐거움의 상실에 대한 주제는 "의욕을 상실", "재미가 없음"으로 일상생활에서 활력이 감소되고, 삶이 무의미하며, 재미가 없음은 좋았고 재미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느낌이 없다고 했다.

> 이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해요. 신랑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맨날 신랑만 괴롭히는 거예요. 신랑이 밖에 나갈 일이 있는데도 나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못 나가게 해요. 나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힘든데 너도 나처럼 힘들어봐야지 왜 나만 힘들어야 하냐고 억지를 부리게 되요. (참 2)

> 최선을 다했다가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세상이 다 캄캄해져요. 내 생활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할 때 무너져요. 어떨 때는 문득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지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나?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아요. (참 7)

> 평소에는 저희 부부 둘 다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주로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둘 다 답답하거나 해결 안 되는 무거운 주제는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회피해요. 임신 실패를 했을 때 저도 신랑도 이야기 안 하고 며칠을 각자 조용히 지내는데 길게 이야기를 안 할 때는 열흘 동안 둘 다 말 안하고 서로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아요. (참 5)

6. 친밀한 성생활의 상실

난임 여성은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성적(sexual) 어려움도 경험하게 된다(Mogobe, 2005). 난임 부부의 성생활은 의료적 개입이 포함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난임 여성들은 치료과정에서 의사가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정해준 시기에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정서를 무시한 성관계를 하게 된다(이경애, 2014). 난임 부부가 성적 문제를 경험하는 이유는 난임 치료과정이 외과적인 처치이기도 하고, 일정에 맞추어 기계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것과, 임신과 관련 없는 섹스는 무익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난임 부부들은 임신을 위한 성행위를 반복하게 됨으로써 부부의 건강한 성생활과 친밀감을 무시하게 되기 쉽다(Thorn, 2009).

본 연구에서 도출된 친밀한 성생활의 상실에 대한 주제는 "성행위 불편감"으로 병원에서 잡아준 날짜에만 성관계를 하다 보니 어색하고 예전 같은 친밀함이 없다는 내용이거나 한편 남편이 기다리고 참아주면서 배려를 해주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 남편은 자주 나를 안고 싶어 하는데 나는 거절할 때가 많아요. 병원에서 준 배란일에 맞춰야 하니까 다른 날은 피하게 되더라고요. (참 5)

> 부부관계를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되요. (참 1)

> 오로지 임신에 초점을 둬 병원에서 정해준 날짜에 맞추어 사랑하는 마음 없이 로봇같이 기계적인 부부생활을 하게 되니 왠지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참3)

7. 하나님과의 긍정적·부정적 관계의 상실

상실 경험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책임감을 자신이나 또는 타인에게 전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거나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고통을 체험한다고 하였다(Downey et al., 1990).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하나님과의 긍정적·부정적 관계의 상실에 대한 주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으며, 신뢰하고 있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자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을 하며,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벌을 받는다고 신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다.

> 시험관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되고 아이가 안 생기니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다섯 번째 실패하니 언제 주실지 궁금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6)

> 임신이 안 되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 갖는 것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데 못 내려놓겠어요. 걱정이 많은 나의 안 좋은 성격 같아요.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참 2)

> 처음 실패를 하고 나서 교회에 기도하러 가서 기도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아이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우리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 봐요. (참 5)

> 양가 모두 기독교라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모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주셔요. 우리 부부도 시험관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아직 안 주시니 아직 열매를 맺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참 1)

>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지금의 고난을 통해 얻은 소중한 선물이니만큼 항상 아끼고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의 과정이 있는 거라고 믿어져요. (참 4)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새벽기도를 8개월 동안 다니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대신 그 과정을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참 7)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난임 여성들의 상실에 대한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이 경험한 다양한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중심현상은 '난임으로 인한 상실'이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진술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진술 46개, 14개의 주제들, 7개의 주제모음을 도출하였다. 7개의 주제군은 여성 정체성의 상실, 관계의 상실, 모성 경험의 상실, 희망의 상실, 즐거움의 상실, 친밀한 성생활의 상실, 신과의 긍정적·부정적 관계의 상실이다. 다음은 7개의 주제가 선택된 상실의 중심현상에 어떤 상호영향을 주면서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추출된 첫 번째 주제는 여성 정체성의 상실이었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면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난임 여성들은 존재감을 상실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간다. 또한 난임의 상황을 가문의 체면을 상실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자녀 출산을 통해 혈통과 대를 잇는 역할을 못함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장애로 귀결하기도 한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조상의 대를 잇기 위한 여성의 의무라고 받아들이는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임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난임 여성은 답답함과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된다. 관계에 대한 욕구좌절과 소외의 경험은 여성의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부 관계에서 위태로움을 느낀다. 김은실(2001)은 한국사회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임신과 출산은 여성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여성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난임 부부의 92%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녀가 그 가족의 가문(혈통)을 강화하며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개인 또는 부부로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단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계라고 믿음으로써(Daniluk & Mitchell, 2003) 임신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강하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추출된 두 번째 주제는 관계의 상실이었다. 난임 여성들의 관계적인 상실은 가족관계, 자녀가 있는 친구,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진다. 난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거리감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부모가 됨으로 다른 여성들과 연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다른 여성들과의 단절감과 관계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관계 상실은 자신을 넘어서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인들과의 만남을 기피하거나 그들로부터 자신이 이해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난임을 겪는 동안 복잡한 감정 상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해를 못받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고립감을 느끼고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난임으로 인한 부부 관계에서도 심각한 변화와 문제를 가져오게 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 안에서 소속감과 설 자리가 없어지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쌓아올린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난임은 가족뿐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손상을 입힐 수 있다(김은주, 2009; HMS, 2009; Wardle, & Cahill, 2005). 관계 상실에서 난임 여성은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기피하여 대인관계를 피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등 사람들의 이해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고독감이 더욱 깊어져 다른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까지로 확장될 위험을 갖는다(권경숙, 2003).

셋째, 본 연구에서 추출된 세 번째 주제는 모성 경험의 상실이었다. 한국의 문화에서 여성은 아이를 낳는 재생산의 수단으로 여성의 지위가 주어져 왔다. 그리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모성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어머니가 되고 싶으나 될 수 없는 여성들, 어머니 되기를 계속적으로 시도하지만 되지 못함이라는 모성부재의 경험으로 상실의 고통을 받게 된다. 즉, 인간인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은 어머니여야 여성은 모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와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또한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도 위로받기보다 소외를 당한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홀로 던져진 듯한 외로움을 느끼며 스스로를 고립시켜간다. 현대 정신분석 학자인 크리스토퍼 볼라스(Christoper Bollas)는 인간의 존재를 관계적 존재로 해석하며 어린 아이는 엄마를 분리된 다른 존재가 아닌 전체로서 체험하고 그 환경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안에서 변화, 성장해 간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아이와 엄마의 관계는 땔 수 없는 중요한 관계라고 볼 때 난임 여성들이 경험하는 모성경험의 상실은 큰 고통으로 경험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추출된 네 번째 주제는 희망의 상실이었다. 난임 여성들에게 희망의 상실은 더 이상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현상적인 사실에 기초한 감정적 반응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존재와 의미를 상실하는 것과 같은 위기의 상황을 의미한다. 난임으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한 이야기를 할 때 희망은 파괴되며 자기의 통전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Johansson과 Berg(2005)의 연구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임신에 대한 희망”을 도출하며 희망이 난임 여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관 실패의 반복은 결과적으로 희망의 상실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난임 여성이 경험하는 심리적, 신체적인 소진과 힘듦을 표현하여준다. 이처럼 “사라져가는 희망”은 Leiblum, Aviv와 Hamer(1998)의 연구결과에서 말하고 있는 난임 시술 실패 경험이 “삶의 동기를 잃어버림, 삶의 목적이 없어짐”과 같은 맥락이라는 점을 잘 부각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난임 여성들이 임신에 대한 희망, 부모됨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여 자신의 미래 이야기를 상실할 때 긍정적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추출된 다섯 번째 주제는 즐거움의 상실이었다. 즐거움의 상실은 삶의 무의미, 채워지지 않는 아이에 대한 욕구로 난임 여성들이 경험하는 고통스러움과 방황을 설명하여 준다. 난임 여성들은 매일 수행하고 있던 일상적인 일마저도 무거운 짐으로 느끼게 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서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 난임이라는 상황에 파묻혀 다른 사람들은 쉽게 선택하는 대안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의지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나 심리적 여유마저 상실하게 된다. 이 또한 Leiblum, Aviv와 Hamer(1998)의 연구결과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동기를 잃어버림, 삶의 목적이 없어짐"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난임 여성의 부부관계에서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배우자와의 난임 의미와 삶의 방식에 의해 밀착 관계가 되거나 점차 멀어지는 관계가 된다고 발표한 박영주(1993)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즉, 임신의 성공은 난임 부부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므로 임신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부부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노승옥 등, 1998)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거나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여섯 번째, 본 연구에서 추출된 여섯 번째 주제는 친밀한 성생활의 상실이었다. 만족스런 성생활은 부부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결혼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져 왔다(문상미, 2002; 이경희, 1995). 부부의 성(sex)은 애정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도모하는 관계적 기능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거나 문제점을 진단하는 바로미터(barometer)로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성생활은 부부의 결속과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Means, 2000). 그러나 난임 여성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제는 결혼 만족도의 결여, 관계의 손상, 성만족도의 결여, 성관계에 대한 자신감 부족 및 성욕 감소 등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Damti et al., 2008; Drosdzol, & Skrzypulec, 2009; Cousineau, & Domar, 2007).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불임 부부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 그들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자신감 저하를 가져다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친밀한 성생활의 상실로 연결되게 된다(Direkvand-Moghadam, Delpisheh, & Direkvand-Moghadam, 2015).

일곱 번째, 본 연구에서 추출된 일곱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의 긍정적·부정적 관계의 상실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생각되어온 신념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멀게 느끼기도 하였다. 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죄의식을 갖게 되고 이는 존재에 대한 상실로 연결되었다. 한혜실(2003)에 의하면 이러한 경험은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과 결핍된 존재감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관계에서 죄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으로서의 소외감으로 경험될 수 있다. Collins(2000)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불안의 크기와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상실로 인한 불안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확신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난임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진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서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고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발견하기도 한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여성들 중 하나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꾸준히 기도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회복되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난임 여성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난임 문제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자아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박경애, 오인숙, 2012).

본 연구를 통하여 난임 여성의 상실 경험에 대한 방향이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난임은 생명이나 생활에 위협적인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임 여성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의 고통은 광범위한 영역의 상실감으로 경험되며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하락되는 결과들을 갖고 오게 된다. 그러나 난임이라는 신체적인 상실을 단순히 아픔이나 결핍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의미를 발견하면 삶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난임이 삶의 위기이며 다양한 상실의 경험이지만 고통 가운데 세상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난임은 한 순간의 고정된 것이 아닌 특정한 시간에 과정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난임을 극복하여 임신을 성공하게 되면 난임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될 수 있다. 즉, 난임 자체에 대한 성공이나 극복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난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난임 여성의 상실 경험은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 영역에 대한 새로운 정립과 방향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는 난임이라는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달리 만들어가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감동을 주고 새롭게 하시며, 이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장명수, 2007). 무엇보다도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의 장에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담영역에서 소외되어 있는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 독특한 상실경험을 하는 난임 여성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고 있다. 반면, 수도권의 난임 전문병원에서 대상을 선정하였고 7명의 소수이기 때문에 전국의 난임 여성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 중 한 사람은 임신을 했으나 유산한 경험이 있었다. 이 경우 임신한 적이 없는 난임 여성이 경험한 것과 다른 상실의 아픔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유산의 경험이 있는 난임 여성들은 일반 난임 여성들과 구분되어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난임 여성들은 위로를 받거나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같은 아픔을 서로 보듬고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는 지지집단 프로그램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는 난임에 대한 왜곡되거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개척하고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의 심리적인 적응 상담이 요구된다.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참고문헌

강은영 (2015). **난임 여성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7. 30.). **의료통계정보.** http://opendata.hira.or.kr/home.do에서 검색.

국립국어원 (2017. 8. 11.). **표준국어대사전.** http://korean.go.kr에서 검색.

권길자, 한재희 (2009). 불안을 호소하는 기독교인의 심리적 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7,** 253-284.

권수영 (2012). **한국인의 관계심리학**. 파주: 살림.

김기환 (2002).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하느님: 심리학과 신학의 대화. **종교교육학연구, 15**, 173-203.

김동춘 (1994). 한국자본주의의 성격과 지배질서: 안보국가, 시장, 가족. 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 **한국 사회의 변동: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pp. 197-235). 서울: 한울 아카데미.

김라현, 이원우, 김영재, 호정규, 한동운, 최영민, 황정혜 (2011). 한국의 보조생식술을 시행 받은 난임환자들의 상담실태에 대한 조사. **대한산부인과학회, 54**(10), 611-617.

김숙영, 황승숙 (1996). 불임 여성이 경험하는 불임 스트레스와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연구, 4**(1), 82-94.

김은실 (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서울: 또 하나의 문화.

김주희, 신혜숙 (2009). 불임 여성의 삶의 질 모형 구축. **대한간호학회지, 43**(3), 312-320.

김지연, 신현, 김미선, 박영남, 최은영 (2012).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수용전념치료(ACT).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2), 87-114.

박강희 (2014). **불임여성을 위한 여성주의 애도 목회상담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박경애, 오인숙 (2012). **인지정서행동치료의 기독교적 적용**. 서울: 학지사.

박영주 (1995). 불임 여성의 불임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209-221.

보건복지부 (2017. 1. 9.). 읍면동 복지허브, 980개에서 2,100개로 대폭 확대. http://www.mohw.go.kr/front_new/sch/index.jsp에서 검색.

신경림, 양진향, 조명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경애 (2014). **난임 여성을 위한 여성주의 목회상담연구: 획일화된 모성에서 다양한 주체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이윤정 (2008). **불임여성의 슬픔에 대한 문화기술지**.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이정숙 (1993). 현대가족의 변화와 가족생활주기에서 본 한국가족문제.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14**, 172-187.

이희정 (2015). 한국 여성의 산후우울증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1), 141-189.

장명수 (2007). 단기가족치료의 목회상담적 접목 가능성.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3**, 189-211.

정희성 (2008). 여성주의 목회상담방법론 연구: 크리스티 누거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총론, 58**, 229-252.

최재락 (2007). 교회 여성의 종교적 정신병리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3**, 212-234.

한혜실 (2003). **근거이론 접근에 의한 여성의 불임경험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황나미, 문신용, 김태준, 심은혜 (2003).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2013). 난임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3**(3), 161-187.

황승숙 (1999). **불임 여성의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Baldwin, B. A. (1979). Crisis intervention: An overview of theory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8*(2), 43-52.

Brueggemann, W. (2000). **현대성서주석, 창세기: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2 출판)

Brueggemann, W. (2012). **구약의 위대한 기도** (전의우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원저 2008 출판)

Bollas, C. (1987). *The Shadow of the Objec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Cody, W. K. (1991). Grieving a personal loss. *Nursing Science Quarterly*, *4*(2), 61-68.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ole Jr., A. H. (2008). *Good mourning: Getting through your grief*. Westminster John Knox Press.

Collins, G. (2000). **크리스챤 카운슬링** (피현희, 이혜련 역). 서울: 두란노. (원저 1980 출판)

Cousineau, T. M., & Domar, A. D. (2007). Psychological impact of infertility. *Best Pract Res Clin Obstet Gynaecol*, *21*(2), 293-308.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Couture, P. D., & Hunter, R. J. (1995). *Pastoral care and social conflict*. Nashville: Abingdon Press.

Creswell, J. W. (2011).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6 출판)

Domar, A. D., Zuttermeister, P. C., & Friedman, R. (1993). The psychological impact of infertility; a comparison with patients with other medical conditions. *Journal of Psychosomatic Obstetrics and Gynecology*, *14*, 45-52.

Gerkin, C. V. (1998). **살아있는 인간문서** (안석모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저 1984 출판)

Gerrity, D. A. (2001). A biopsychosocial theory of infertility. *Family Journal*, 151-158.

Gillies, J., & Neimeyer, R. A. (2006). Loss, grief, and the search for significance: Toward a model of meaning reconstruction in bereavement.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9*(1), 31-65.

Greenspan, M. (1995). **우리 속에 숨어 있는 힘** (고석주 역). 서울: 또 하나의 문화. (원저 1993 출판)

Kluger-Bell, K. (2000). *Unspeakable losses: Healing from miscarriage, abortion, and other pregnancy loss*. New York: Quill/HarperCollins.

Jacob, M. C., McQuillan, J., & Greil, A. L. (2007). Psychological distress by type of fertility barrier. *Human Reproduction*, *22*, 885-894.

Johansson, M., & Berg, M. (2005). Women's experiences of childlessness 2 years after the end of in vitro fertilization treatment.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19*, 58-63.

Lewis, H. (2013). *Freud and Modern Psychology: The Emotional Basis of Mental Illness* (Vol. 1).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Lund, R., Sejbaek, C. S., Christensen, U., & Schmidt, L. (2009). The impact of social relations on the incidence of severe depressive symptoms among infertile women and men. *Human Reproduction*, *24*(11), 2810-2820.

Mahlstedt, P. P. (1985). The psychological component of infertility. *Fertility & Sterility*, *43*(3), 335-346.

Miall, C. E. (1986). The stigma of involuntary childlessness. *Social Problems*, *33*(4), 268-282.

Mogobe, D. K. (2005). Denying and preserving self: batswana women's experiences of infertility. *African Journal of Reproductive Health*, *9*(2), 26-37.

Neuger, C. C. (2002).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정석환 역). 서울: 한들출판사. (원저 2001 출판)

Spar, D. L. (2006). *The baby business: How money, science, and politics drive the*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commerce of conception.

Stallard, P., & Salter, E. (2003). Psychological debrief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following traumatic events.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8*(4), 445–457.

Stigger, J. A. (1983). Coping with infertility: A guide for couples, families and counselors. *Minneapolis: Augsburg.*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Thorn, P. (2009). Understanding infertility: Psychological and social considerations from a counselling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Fertility and Sterility, 3*(2), 48–51.

Verhaak, C. M., Smeenk, J. M. J., Van Minnin A, Kremer, J. A. M., & Kraimat F. W. (2005). A longitudinal prospective study on emotional adjustment before, during and after Consecutive fertility treatment cycles. *Human Reproduction, 20*, 2253–2260.

Wimberly, E. P. (2005). **목회상담과 성경의 사용** (김진영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94 출판)

Woods, N. F., Olshansky, E., & Draye, M. A. (1991). Infertility: Women's experiences. *Health Care for International, 12*, 179–190.

Worthington, E. L. (1987). *Counseling for unplanned pregnancy and infertility* (Vol. 10). W Publishing Group.

Wright, H. N. (2010). **트라우마 상담법** (금병달, 구혜선 역). 서울: 두란노서원. (원저 2003 출판)

Wright, J. H., Basco, M. R., & Thase, M. E. (2009). **인지행동치료** (김정민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6 출판)

Wynn, J. C. (2002). **가족치료와 목회상담** (문희경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2003 출판)

Yarhouse, M. A., & Sells, J. N. (2010). **기독교 가족치료** (전요섭, 한숙자, 변영인, 김영희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저 2008 출판)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ubfertile Women's Experience of a Sense of Loss: Focusing on Christian Women

Jeon, Sun Cho / Kwangwoon University
Lee, Sang Hee / Kwangwoon University

This research explores the subfertile women's experience of a sense of loss by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effective interventions of Christian counselors in order to help subfertile women recover from their sense of loss.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were seven subfertile women, age of 32-38, who were diagnosed as subfertility and were on 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The research method employed was phenomenological study by Colaissi (1978) that categorizes the common themes among statements by research participants. As a result, forty-six meaningful statements, fourteen themes, and seven theme clusters were extracted from interview: sense of loss for female identity, sense of loss for relationships, sense of loss for motherly experience, sense of loss for hope, sense of loss for joy, and sense of loss for intimate sexual experience. Based on the result, the researchers explain the subfertile women's experience of sense of loss from the psycho-social perspective. Reflection on experience of subfertility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was also provided. In conclusion, considering that the subfertile women's experience of a sense of loss was caused by oppressed narratives and distorted thoughts, the researchers suggest narrative counseling, cognitive restructuring, and support group, as effective counseling interventions for recovering the subfertile women's sense of loss.

■ Keywords: subfertile women, christian, sense of loss, phenomenological study

접수일: 2017년 8월 20일, 심사완료일: 2018년 2월 5일,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5일

가천대학교 | IP:211.253.219.*** | Accessed 2019/06/19 09:00(KST)